

곡성군, 내년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주)곡성교통과 업무 협약 체결
2016년 천원버스·효도택시 등
교통복지 향상·경제 활성화 제고

곡성군이 내년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한다.

군은 지난 18일 (주)곡성교통과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주)곡성교통이 운행하는 모든 군내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군민은 물론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누구나 교통카드나 현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면, 담당읍·읍과면 노선 중 담양 구간 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와 곡성군 관내를 운행하는 타 시군의 운수사의 노선은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

곡성군은 2016년 천원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효도택시를 운영하는 등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통해 군민



곡성군은 지난 18일 (주)곡성교통과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이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으로 군민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 역시 부담 없이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박준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지난 18일 노관규 순천시장과 그린바이오 등록기업 대표들이 공동협력서에 서명을 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본격 시동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컨퍼런스…지·산·학·연 생태계 구축 협력

순천시가 지난 18일 순천시 혁신농업인 센터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기념 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농업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 정책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에 앞서 순천시, 그린바이오 기업 12개사가 참여한 공동협력 서명식이 열렸다. 참석기관과 기업은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모아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육성지구 선정의 의미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이학성 전남바이오진흥원 그린바이오본부장이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순천형 혁신도시 조성 전략' ▲김동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장이 '정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방향' ▲천지연 순천대학교 그린바이오 지식학캠퍼스 단장이 '산학연관 협력의 중요성' ▲방수진 순천시 신성장산업과장이 '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 정책' ▲정도연 밸호미생물산업진흥원 원장이 '재단의 역할과 성공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책 방향과 산학연관 협력, 지역 산업 발전 전략 등 순천형 그린바이오 생태계의 비전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참석 시민들은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시민들의 열망 및 현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시의 인프라와 추진역량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라며 "시민·기업·대학·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치면 빠른 시일 내에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품개발·소재화·설비 구축, 원료 계약재배 지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통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2월 1일 순천시는 농축산식품부에 '그린바이오산업 전진기지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인 구(舊) 승주군청 일원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구축사업과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지역 원료 기반 가능성 소재 개발, 산학연 및 주민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여수공항, 관광 활성화·공항 이용 확대 '맞손'

공동 마케팅·패키지 개발 등 협력
남해안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보성군이 지난 17일 보성군청에서 보성군과 여수공항 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공항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하정인 여수공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해안 관광권 연계와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보성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여수공항의 항공 교통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수요 확대와 공항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여수공항·보성 관광자원 연계 홍보 및 공동 마케팅 ▲ 공항 이용객 대상 보성관광 콘텐츠·특산물 홍보 ▲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 및 패키지 상품 발굴 ▲ 지역 축제·행사와 공항 홍보 기반 연계 활용 등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공항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경로를 다각화하고, 남해안 관광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여수공항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통해 이용객 증가와 공항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보성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여수공항의 교통 인프라가 결합해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여수공항과의 긴밀한 협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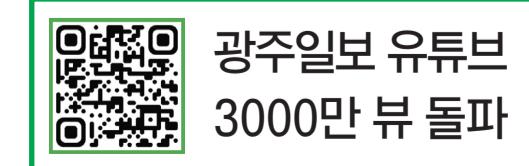
통해 보성이 남해안 대표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

했다.

한편, 보성군은 유통망 확장, 보성차밭, 벌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파순마을 큰잔치'로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

75개 공동체 참여…전시·영상·공동체 트리 점등 등 행사 다채

순천시가 지난 12일 저전나눔터에서 '2025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파순마을 큰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성과공유회는 '따뜻한 순천마을, 빛나는 공동체'를 슬로건으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해 온 공동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2025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총 75개의 공동체 구성원과 마을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마을공동체 특별공연(시낭송·순기자락·난타)으로 시작된 성과공유회는 ▲마을공동체 활동 전시 및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공동체 트리 점등

▲파순마을학교 수료식 ▲마을공동체 Q&A 토크쇼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수 마을공동체 표창은 돌봄·교육·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참여와 협력 활동이 우

수한 6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여됐다. 수상 공

동체는 ▲너울가지공동체 ▲진아방 ▲주암마을

부녀회 ▲세여든 ▲나빛실험실 ▲순천선풍3빛

찬들아파트이다.

또 마을공동체 전시부스에서는 공동체별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직접 만든 물품과 음식을 나누는 나눔 공간이 운영돼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우리는 누구나 섬에 살고 있다

여수 11번째 관광 웨드러마 '더 섬' 제작 돌입
세대 갈등·희망 담아…일레븐 브리지 등 배경

여수시가 내년 3월 배포를 목표로 11번째 여수관광 웨드러마 '더 섬(The Island)'의 본격 제작에 돌입했다.

이번 작품은 여수의 섬에서 태어나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5명의 동창이 경쟁사회 속 상실과 갈등을 마주하며 세대 간 오해와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총 5화, 50분에 담았다.

1화 '이 밤을 다시 한번', 2화 '꿈결 같은 세상', 3화 '그대 밤길 머무는 곳에', 4화 '바라볼 수 없는 그대', 5화 '사랑의 썰불'로 이어지며 끊어진 지도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의 물입도와 재미를 높인다.

주인공들은 서로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한 여정이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특히, 도해(島海)와 그의 아들 대현이의 영혼이 뒤바뀌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번 이야기는 세대 간 갈등과 이해를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낸다.

극 중 달이는 섬과 바다를 연결하는 여수의 11개 다리(일레븐 브리지)를 상징하며, 이번 작품이 여수시의 11번째 웨드러마라는 점과도 맞물려 특별한 상징성을 더한다.

또 이번 웨드러마는 K-컬처의 세계화 흐름을 반영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상시키는 아이들 지망생 대현이와 외국인 엘라가 만

들어가는 로맨스 서사도 함께 그린다.

두 캐릭터의 만남과 성장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수의 주요 관광 명소와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청자에게도 공감과 흥미를 전한다.

촬영은 낭도와 추도의 숨은 명소를 비롯해, 적금대교, 가사리 갈대밭, 짚리인, 해상케이블카 등 여수의 대표 관광지를 두루 담아내며 지역의 아름다움과 풍경을 영상으로 담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번째 웨드러마 '더 섬' 역시 2026여수세계博览会를 앞두고 여수만의 감성과 세계관을 담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이미지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 웨드러마는 단순한 홍보 영상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하는 대표 콘텐츠로, 매 작품 다양한 여수 관광 매력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 첫 작품 '신지끼의 사랑이야기'를 시작으로 올해 '그림자'까지 10년 가까이 웨드러마 제작을 이어오며 국내외 웹페스티벌에서 꾸준히 호평을 얻어온 것은 물론, 웨드러마 성지이자 K-콘텐츠 기반 관광 홍보의 선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탄소중립' 고흥군민 327명에 인센티브 2000여만원

누리집·읍면 사무소 상시 신청

고흥군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군민 327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화)' 인센티브 총 2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수소·도시가스)를 절약하거나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산정된 포인트를 현금 등의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범국민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고흥군은 아직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energy.cpoint.or.kr)', 자동차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automobile.cpoint.or.kr)'를 통해 상시 가입할 수 있으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에너지 부문은 개인, 상업시설, 학교·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부문은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kwangju.co.kr〉